

납세자와 공감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주세무서와 업무협약 체결 세금교육과 상담·세정홍보로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과 전주세무서(서장 전태호)는 지난 15일 현장에서 직접 납세자와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세금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협약은 전주지역 최초로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 고객에 대한 세금교육과 상담 및 세정홍보를 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동반성장과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자 이뤄졌다.

또한, 협약을 통해 전주세무서는

"롯데백화점 입점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상담부스 운영과 세금신고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백화점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안내, 교육관련 내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조환섭점장은 "전주세무서와 함께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기업으로 성실납세 지원에 앞장서 상호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에 기여하겠다"며, "상공인을 위한 세정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과 전주세무서가 지난 15일 직접 납세자와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는 '세금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韓 수입 의존도 낮아져 경제 부가가치 창출력 개선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수입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화 진전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력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여전히 낮고 수입 의존도도 높은 상황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발표한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화와 서비스 총공급액(총수요액)은 4457조6000억원으로 2010년보다 697조7000억원(18.6%) 증가했다. 산업연관표는 통상 1년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화, 서비스, 생산, 처분 내역 등을 기록한 통계자료다.

총공급 및 총수요에서 수입(14%)과 수출(16.1%) 등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33.1%에서 축소된 것이다. 대외거래에서 수입 의존도는 5년 전 수준(15.6%)보다 3.2%p 하락한 12.4%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4.1%), 중국(4.9%), 일본(5.5%) 등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총산출 기준 부가가치율은 42.7%로 2010년(39.5%)보다 개선됐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기업의 R&D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산자 서비스 시장이 성장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산출액 구성비율을 보면 공산품은 2010년 48.7%에서 44.5%로 축소됐으나 서비스 비중은 같은 기간 40.3%에서 44.9%로 확대됐다.

부가가치 창출력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0.774로 2010년(0.717)보다 좋아졌다.

/뉴시스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과 편법이 없는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불법과 편법 없는 시장 조성한다

이통 3사-유통망, 상생협약 체결...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페이백 등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과 편법이 없는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지체인협회 등 6개 기관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지키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및 불법과 편법이 없는 무선시장 조성을 위해 과도한 시장안정화 정책과 차별적인 장려금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특정지역 및 특정채널 특정 유통점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 영업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셋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핀셋 모니터링 방안은 스캐너 오류점, 개통 집중점(사후채증), 불법 영업채널 상호채증(페이백), 미스터리 쇼핑(페이백), 현금·부분수납 과다점 실시간 확인 등이다.

아울러 장려금 정책의 적정 단가

및 합리적 차등을 보장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세부기준은 한 달 내에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신규 대리점 개설 시 자율적으로 최소한의 인프라 정책을 실시토록 했다.

향후 이들은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를 위해 한 달 내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사전승낙 요건강화 및 합리적 운영방안 ▲유통망 자율준수 제보시스템 구축 ▲불편법 온라인 및 B2B 월경 ▲신분증스캐너 관련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책금융 혁신자금 총괄기구 출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첫 회의... "생산적 금융 첨병 되도록"

정책금융기관들이 혁신성장 지원에 투입하는 자금을 총괄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지난 15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3시에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정식 출범한 후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 부처와 관련 정책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됐다. 회의는 향후 혁신성장 관련 정책 자금 운용·지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를 주관한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혁신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금이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점검이 그간 미흡했다"고 짚으며 "효과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선 개별 정책금융기관의 노력을 넘어 정책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업, 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회의회에서 8대 선도사업, 4

대 신산업 등 혁신 분야 공급 재원의 집행 계획을 점검·조정할 계획이다. 기관 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혁신 지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관 평가 예산·출자, 배당 등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이밖에 투·융자, 보증, 일괄 지원 등 기관 간 협력과 함께 민간 자금 유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자금 지원이 소홀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고 시장과의 기능 마찰, 중복 지원 등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실물 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생산적 금융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산업·기술 변화를 금융 측면에서 적시성 있게 뒷받침하는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 부처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뉴시스

농협, 돼지 안정자금에 300억 투입... 수급안정 총력

농협은 지난해 10월부터 급락한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3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조성, 돼지가격 및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 2월 돼지 도매가격은 kg당 3143원으로 지난해 평균가격(4296원)보다 26.8%, 전년동월(4114원)보다 23.0% 하락해 생산비를 크게 밀치고 있다.

양돈농가는 돼지 한 마리 당 약 7만~8만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어 예년과 같은 돼지가격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은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범 농

협 한돈 소비촉진 운동, 새콤맛이 돼지고기 소비촉진 나눔행사, 사랑의 돼지고기 도시락 나눔행사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돈농협과 함께 자금 조성 및 예산을 추가 편성해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번에 투입되는 돼지가격 안정자금 300억원을 통해 돼지가격 및 수급안정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돈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돼지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은행, 정기주주총회 개최... 임용택 은행장 연임 확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5일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중에서는 은행장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선임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용택 은행장 연임을 확정(임기 2

년)했고 사외이사에는 최정수 변호사, 이준호 사외이사가 재선임 됐다.

임용택 은행장은 "기반 영업을 강화해 고객 확대에 주력하고 차별화된 전략상품을 중심으로, 자산 성장과 내실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50주년을 넘어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